FX Market Daily

2025-10-24

전일동향

전일대비 9.80원 상승한 1,439.60원에 마감

23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9.80원 상승한 1,439.6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00원 상승한 1,431.80원에 개장했다. 장 초반 환율은 금통위 경계감에 1,430원대 초중반을 횡보했다. 이후 한미 관세협상의 대미투자 패키지 관련 소식에 환율은 1,440원을 상향 돌파하며, 1,439.6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10.2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4.37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31.80	1441.50	1431.30	1439.60	1436.60
엔화	940.77	945.07	939.54	943.34	-
유로화	1659.71	1672.81	1658.52	1672.08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47	-4.77	-10.82	-20.66
결제환율(수입)	-0.26	-3.93	-9.03	-17.2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미-중 정상회담 확정에...1,43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15)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439.60) 대비 2.65원 하락한 1,434.8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CPI 관망 속 위험선호 회복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허리펑 부총리가 24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도 다음 주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했다. 미-중 정상회담 소식에 따른 위험선호 회복에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다. 셧다운 여파에 발표가 9일 지연된 미국 9월 CPI는 금일 저녁에 발표될 예정이다. 시장은 9월 CPI에서 인플레 압력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고 보지만, 연준이 고용둔화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CPI는 금리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석유업체 제재 소식에 5% 이상 급등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 루코일, 로스네프트 등 대형 석유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했다. EU도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금지 등 제재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달러화는 미중 정상회담 소식이 촉발한 위험선호에 강보합세를 보였다. 한편 엔화는 국제유가 상승이 주요 석유 수입국인 일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반영해 약세를 보였다. 금일 환율은 위험선호 회복 및 수출업체 고점매도 유입을 소화하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일 발표 예정인 미국 CPI 관망 심리 및 달러 실수요 매수 등은 하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30.67 ~ 1440.33 원

체크포인트

-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071.44 억원
-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65원↓
- ■ 美 다우지수 : 46734.61, +144.2p(+0.31%)
-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2.92 억달러
-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787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